

# 일제기 부산 지역 언론인 연구\*

채백\*\*

이 논문은 일제기 부산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부산 지국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언론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했지만 특히 지방의 언론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일제기까지는 지방에서 발행된 한국 신문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부분은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일제기의 신문 지면과 기타 문서 자료들을 중심으로 두 신문 부산 지국장의 출신 배경과 활동 경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산 지국장은 『동아일보』가 9명, 『조선일보』가 6명이었다. 이들의 이념 성향을 보면 『동아일보』는 총 9명 중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김종범과 김용진, 노상건, 강영순, 강대홍의 5명이며 민족운동과 청년운동 계열이 안희제, 김준석, 서유성이고, 재계 인사가 문상우 1명이다.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절반이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현재 파악되는 6명의 지국장 중 청년운동 출신이 인명환과 황기수, 최철룡의 3인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김영근과 윤일이 있다. 그밖에 지역진은 재계 인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가 사회주의자들이었으며 그밖에는 청년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동아일보』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당시 신문의 전체 사회 및 민족운동에서의 위상에 따라 부산 지국의 인적 구성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언론사, 언론인, 일제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부산 지국

## 1. 문제의 제기

이 논문은 일제기 부산에서 활동하였던 언론인들을 분석하였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일제기 부산에서는 일본인들이 발행한 『부산일보』와 『조선시보』만이 발행되었을 뿐, 한국인에 의한 신문은 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산 지역 언론인은 바로 1920년에 창간된 민간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부산 지역 지국과 분국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그 인물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최근 학계에서 지방 언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새로운 학문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계의 연구 성과로는 먼저 지방신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사적 연구들이 있다. 박정규의 연구(1987, 1997)와 정진석(199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논문들은 지방 신문 전체의 역사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개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특성과 한계를 지닌다. 박용규의 연구(1998, 2006)는 각기 개화기와 일제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총독부를 비롯한 일본측의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특정 지역의 언론사를 정리한 연구들도 있다. 유종원·김송희의 연구(2005)는 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당시 미군정치의 언론 정책을 분석하고 3개 지방지의 경영 주체들과 지면 분석을 토대로 하여 광주 지역 언론의 이념적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군정기의 지역 언론 동향을 구체적으로

\* 이 논문은 2010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bchac@pusan.ac.kr)

구명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박창원의 논문(2011)은 일제기 대구 지방에서 발간된 한글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일제기 대구에서 발간되었던 「남성경제일보」를 비롯하여 「경북공론」, 「관문과 경북」, 「독고」 등을 대상으로 제한된 자료이지만 이를 통해 그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려 한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산 지역의 언론사를 다룬 학술적 연구로는 채백의 연구(1997, 2009)와 김민남 외의 연구(2002)가 있다. 채백의 연구(1997)은 부산 지역 언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분석하였지만 개괄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민주중보」의 이념 성향을 분석한 채백의 연구(2009)는 지방의 언론 역사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김민남 외의 연구(2002)는 자료의 제한으로 더욱 접근이 어려운 방송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나아가서 지역의 언론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더욱 희소하다. 언론인 집단을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한 논문으로는 박용규의 논문(1994)과 황상무(1989)이 있다. 황상무의 연구는 개화기 언론인을 대상으로 신분과 사회적 배경 등을 분석하였다. 일제기 언론인 집단을 분석한 박용규의 논문(1994)은 당시 언론인 단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당시 언론의 지분국에 근무하던 언론인의 명단도 정리된 바 있지만 전체적인 연구의 초점이 서울 중심이고, 지방 언론인에 대해서는 그 이상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현황을 고려할 때 지역 언론인에 대한 역사적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더욱이 지역의 언론들은 1909년에 진주에서 창간된 「경남일보」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창간, 운영되었다. 일제기까지는 지역에서는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신문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일제기 지역의 언론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제기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언론인들 중에서 현재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인물들, 즉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부산 지국장들을 중심으로 각 지분국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정리, 분석해 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들은 당시 해당 신문들 지면에 「사고」(社告)를 통하여 각 지분국 인사의 변동 상황을 공지한 것을 토대로 언론인 명단을 1차적으로 추출해 내고, 그 중 지국장들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그 인물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아일보」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와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http://dna.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를 통해 검색하였으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아카이브」([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를 검색하여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두 신문 모두 「부산」과 「지국」 혹은 「분국」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였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검색 건수가 「동아일보」보다 현저하게 적게 나왔다. 이는 실제로 「조선일보」가 지방의 지분국에 관한 정보를 지면에 반영하는 비율이 낮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검색 엔진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분석이 가능했지만 「조선일보」는 충분한 분석이 어려웠음을 밝혀 둔다.

## 2. 일제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부산 지분국 현황

### 1) 일제기 신문사 지국의 역할

일제기 부산 지국에서 활동한 언론인들을 살펴 보기에 앞서 당시 두 민간지의 지국 현황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의 신문 보급은 각지의 지국과 분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일제기의 신문사 지국은 신문의 보급과 판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취재 기능도 담당하였다(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 1975, 115~118쪽). 각 지국에는 약간 명의 기자를 두었다. 지방 관련 기사들은 전국 지국의 지국장들과 이 기자들이 취재하였다.

창간 후 지방의 보급망도 확충되어 지방의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신문들도 지방 관련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하였다. 일제기의 인구를 보면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광복이전통계』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만큼 지방의 시장이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지방부를 독립된 부서로 개편하였다. 「동아일보」는 1921년에(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 편, 1975, 164쪽) 「조선일보」는 1924년에 각기 지방부가 독립된 부서로 되었다(조선일보7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0, 1~124쪽). 이에 따라 지방면이 확충되는 등 지방 관련 소식이 강화되면서 그 취재망과 취재 능력의 보완이 현실적으로 절실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제기 민간지들은 지방의 지국장을 본사 특파기자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지국장이 지국의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가끔씩 그 지역의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기사를 쓰는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본사의 기자라는 역할에 중점을 두면서 지국에 파견되어 지국 운영까지 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아일보」는 1923년 7월부터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여 대구, 부산, 광주, 평양, 목포 등지에서 실시하였다(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 편, 1975, 173쪽).

한편 지분국의 기자들을 서울로 불러 교육을 시킴으로써 취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동아일보」는 1925년부터 지국의 기자들을 교대로 2개월씩 본사가 교육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 편, 1975, 500쪽). 이는 지방 기사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 기자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생겨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다.

일제기 본사와 지국의 관계는 독립운영 체제와 본사 직영 체제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지국이 운영되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일제기 잡지의 지사 운영에 관한 자료들이 일부 남아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1920년대 대표적 잡지라 평가되고 있는 「개벽」의 경우 지역에 지사와 분사, 분매소를 두고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창간 초기 9개 분매소에서 출발하여 1926년 8월 제72호를 발행하고 폐간되기 직전에는 전국에 52개의 지사와 62개의 분사를 두어 국내뿐만 아니라 만주와 간도 지역 그리고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까지 유통망을 확대하였다. 지분사는 취급 규모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졌다. 당시 개벽사가 함께 발행하던 「신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하여 200부 이상을 취급하는 갑종 지사로부터 100부 이상의 을종 지사, 분사는 50부 이상, 10부 이상은 분매소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 등급에 따라 유통마진을 다르게 설정하지는 않고 대개 2할 정도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갑종 지사는 한 달 평균 15~20원, 을종 지사는 7.5원~10원, 분사는 3.7원~5원, 분매소는 최대 1.5원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30원임을 고려하면 이것만으로는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분사들은 서점이나 신문의 지분국과 겸영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최수일, 2005, 354~367쪽).

잡지의 유통도 1930년대에 들어서면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1932년에 창간된 사회주의 계열의 「집단」이라는 잡지의 지국 운영 규정을 보면 각 지국의 보급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할인율을 더 높게 적용하여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50부까지는 정가의 2할인이지만 50부 이상은 3할, 100부 이상이면 4할, 300부 이상이면 5할까지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구독료 수입 외에 현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5할을 지국의 수입으로 하며 본사가 출판하는 서적도 25%의 이윤을 보장하여 판매토록 하였다(김문중, 2006, 45쪽).

이 잡지들의 지국 운영도 다른 잡지나 신문의 지국 운영을 모범으로 삼아서 규정을 만들었을 것이기에 신문들도 대개 이와 비슷한 틀에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조선일보」는 1923년 10월부터 부산 지국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이때 지국장 황기수(黃紀秀)와 기자 윤창한(尹昌漢), 이강호(李康昊)를 본사 특파원으로 발령하였다(「조선일보」 1923. 10. 5. 4면). 부산의 뒤를 바로 이어서 인천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였다(「조선일보」 1923. 10. 21. 4면). 이때의 본사 직영 체제 전환은 다른 지역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일제기의 지국과 본사의 관계는 변동이 많았다. 본사 직영으로 전환되고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뒤에는 또다시 바뀌었다. 인천의 경우를 보면 1928년 10월 10일자 1면의 사고를 통해 다시 인천 지국을 본사 직영으로 한다는 내용이 공지되었다. 이를 보면 1923년 10월 이후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독립운영체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지국의 운영이 여의치 않으면서 이에 대한 본사의 방침도 바뀌었던 것 같다.

「조선일보」는 1928년 9월에 지방 주요 도시에 특파원을 보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28년 9월 23일자 2면의 「사고」를 보면 지방 소식의 중요성은 증대되어 가는데 이를 지국에만 맡겨 놓기에는 불안을 느낀다면서 경험있고 지방 사정에 밝은 기자를 특파한다는 것이다. 이 특파원들은 지방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 혹은 사건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면서 취재를 하였다. 1933년에는 주요 5대 도시에 특파원을 상주시켰다. 전술한 「동아일보」의 경우처럼 「조선일보」도 1937년부터는 지방의 기자들을 불러 2개월간 교육을 실시하였다(조선일보사, 2010b, 360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기 두 민간지는 지국과 분국의 인력이 단순히 판매와 보급에만 종사한 것이 아니라 주재 기자로서의 역할도 하였으며 지방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 가면서 일제기 민간지들은 지방 취재 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동아일보」 부산 지국의 현황

「동아일보」는 창간과 함께 지방에 지국, 분국을 설치하여 지방의 신문 보급에 나섰다. 창간 당시에는 충청북도과 강원도를 제외한 각도의 주요 도시에 지국을 설치하였다. 경남지방에는 부산, 진주, 마산에 지국이 설치되었다(「동아일보」 1920. 4. 1. 3면). 그 이후 「동아일보」는 부산에서도 그 보급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부산 지국 산하의 분국을 확대시켜 나갔다. 일제기 「동아일보」 부산 지국의 분국 설립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동아일보」 부산지국의 분국 현황

분국	설립 연월	초대 분국장	출처(동아일보 지면)	분국장*
밀양	1920. 5.	高遠涉	20.5.5.	金熙址(25.5)
울산	1921. 7.	金東旭	21.7.17.	金澤天(23.4) 曹亨珍(23.11) 金澤天(25.4) 朴秉鑣(28.5) 任龍吉(31.5) 朴鍾魯(34.3) 崔漢承(?) 李龍雨(37.3)
동래	1921. 7.	李炳虎	21.7.23.	林光煥(21.11.16) 李相烈(22.7.28) 文復煥(26.9) 金仁浩(27.11) 金淳英(29.6) 李在鉉(30.12) 朴性旭(40.4)
牧之島 <sup>1)</sup>	1925. 11.	田明守	25.11.2.	曹星煥(26.7.4)
구포	1927. 6.	金聖煥	27.6.18.	辛琮奎(?-32.3) 孫致浩(32.12) 辛琮奎(33.4) 李成珪(39.3) 李炯(40.4)
사상	1929. 8.	金圭華	29.8.16.	朴翔煥(32.8)
웅동	1932. 11.	鄭午壽	32.11.17.	崔太鳳(34.11)

\* 자료 : 밀양, 울산, 동래, 구포의 자료는 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1975, 441~442쪽), 사상과 웅동의 자료는 『동아일보』 1932년 8월 23일자와 1934년 11월 28일자.

창간 직후에는 밀양, 울산, 동래군 등 경남 지역으로 분국을 늘려 갔으나 이후로는 부산 지역 내에서 확산시켜 나가다가 1932년에 현재 진해 지역의 웅동까지 분국을 설치하였다. 동래도 분국으로 출발하였으나 1924년경 지국으로 변경되어 산하에 분국을 일광(1925. 10. 21. 4면), 서면(1931. 1. 3. 7면)에 설치하였다. 아래의 표는 동래 지국 산하 두 분국의 분국장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동아일보」 동래 지국 산하 분국장의 변천

분국	변동 상황	관할지국
일광	崔翔舉(25.10.21.-)	동래
서면	姜在殷(31.1.3.-) 金二龍(31.5.6.-) 徐成萬(31.10.9.-)	동래

\* 자료 : 「동아일보」 각 일자 지면.

분국 외에 부산 시내에 판매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923년 9월에 시내 두 곳, 초량에 남부판매소, 좌천에 북부판매소를 설치하여 판매 확장을 도모하였다(『동아일보』 1923. 9. 26.). 이후 영도와 구포, 사상에 분국을 설치해 나감으로써 부산 지역을 공간적으로 포괄하는 시장을 형성해 나아갔다.

### 3) 「조선일보」 부산 지국의 현황

「조선일보」는 창간호를 낸 것은 1920년 3월 5일이었지만 창간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창간 후 격일로 3호까지 내고는 장기 휴간에 들어갔다가 4월 28일야 제4호를 발간하고 다시 휴간하여 5월 9일야 속간할 수 있었다(김민환, 1996, 214쪽).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일보」처럼 창간 초기부터 지방의 지분국을 갖추고 시작하기는 어려웠다. 1920년 3월 9일자 제3호의 3면을 보면

1) 지금의 영도를 말함(주경업, 2008, 29쪽).

창간 초기에는 개성과 마산에 지국을 설치하였으며 5월 12일자 4면을 보면 안성에 지국을 설치하였다.

부산에 지국이 설치된 것은 그해 6월초였다. 6월 9일자 3면에 실린 사고를 통해 부산의 지국을 지금의 초량동에 해당하는 지나정(支那町)에 두며 초대 지국장에 지영진(池榮鎚)과 고문에 이청(李菁), 총무 겸 기자에 이언성(李彦成)을 발령한다고 공지하였다.

「조선일보」 부산 지국은 「동아일보」와는 다소 다르게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분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으로 지국의 내부 조직을 확대 개편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후술하겠지만 부산 지국의 분국으로는 1923년 1월에 동래분국이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나 그해 4월에는 이 동래분국은 부산지국 통신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업무 내용 면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매와 광고 업무를 그대로 맡았으며(「조선일보」, 1923. 4. 7. 4면) 별도로 기자도 채용하였다. 「조선일보」 1923년 5월 24일자 4면을 보면 동래통신부 소속으로 김정호를 기자 겸 외무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이 공지되고 있다.

또한 부산 지국 내에 영업부와 사진부도 설치하였다. 「조선일보」 1923년 7월 5일자 4면을 보면 ‘조선일보 부산지국 영업부’ 명의로 사진부를 설치하고 사진사를 고용했다는 사고가 게재되었다. 이 사진사를 보도 업무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개인적 사진까지도 취급하도록 하였다. 영업부의 설치의 언제부터였는지 확인이 안되지만 이 시기에 이미 영업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부산 지국도 신문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분국을 확장해 나아갔다. 부산 지국의 분국으로는 1923년 1월 동래분국이 가장 먼저 설립되었다. 전술한 대로 이 동래분국은 1923년 4월에는 부산지국 통신부로 바뀌어 판매와 광고 업무를 맡게 되었다(「조선일보」, 1923. 4. 7. 4면). 얼마 뒤인 1923년 8월에는 다시 동래 지국을 설치하였다(「조선일보」, 1923. 8. 23. 4면). 1923년 10월부터는 부산 지국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였다(「조선일보」, 1923. 10. 5. 4면). 한편 1923년 5월에 목도 분국이, 1927년 11월에는 동래 관할의 기장 분국이 설치되었다.

<표 3> 「조선일보」 부산지국의 분국 현황

분국	설립 연월 (지면계재일)	개설 당시 분국장	비고
동래	1923.1.10.	盧容善	동래지국 관할
목도	1923.5.10.	劉三星	
기장	1927.11.23.	盧丹反	

「조선일보」도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의 보급망 확장에 나서 1938년에는 경남도 내에 24개 지국과 13개 분국을 설치하였다. 이때에 주요 도청 소재지들의 지국을 지사로 승격시키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함남과 평남, 전북, 경북, 경남이 지사로 승격되었다. 당시 경남지사장은 오덕상(吳德想)이었으며(조선일보7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0, 1~348쪽) 1940년도의 경남지사 특과원 겸 주재기자는 변용갑(卞龍甲)이었다(조선일보7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0, 6~112쪽). 1930년대 후반에 오면 경남 지방의 지국과 분국 수는 「조선일보」가 37개, 「동아일보」가 30개로 조선일보가 더 많았다(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편, 1991, 529쪽).

### 3. 일제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지국장

#### 1)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들

일제기 「동아일보」 부산 지국은 초대 안희제 이래 총 9명의 인물이 지국장을 역임하였다. 다음의 표는 「동아일보」 부산 지국의 지국장 명단과 재임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재임 기간을 보면 대부분 단명했으나 7대 강영순은 11년 넘게 재임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지국장들의 인물과 활동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4> 일제기 동아일보 부산지국장 명단

지국장	재임기간	자료의 출처
安熙濟	1920. 4---	「동아일보」 1920. 4. 1.
金鍾範	1921. 6---	「동아일보」 1921. 6. 22.
金準錫	1922. 7---	「동아일보」 1922. 7. 8.
文尙宇	1923. 9---	「동아일보」 1923. 9. 22.
金龍鎭	1924. 2---	「동아일보사사 권1」, 415쪽.
盧相乾	1925. 8---	「시대일보」 1925. 12. 27.
姜永淳	1926. 5---	「동아일보」 1926. 5. 4.
姜大洪	1937. 11---	「동아일보」 1937. 11. 7.
徐有聲	1940. 7. 20.---	「동아일보」 1940. 7. 27.

#### (1) 백산 안희제

초대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을 맡았던 백산 안희제는 한국 독립운동에서 교육과 산업, 그리고 언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 인사이다. 1885년 경남 의령 출생의 안희제는 서울의 양정의숙을 졸업하고 교육운동에 투신하여 고향인 의령 지역에 의신학교(1907년), 창남학교(1908)를 설립하였다. 부산에는 1907년 구명학교를 설립하여 1909년에는 직접 교장을 맡기도 하였다. 양정의숙 재학 중에는 교남(嶠南)학우회를 조직하였으며 1908년에는 교남교육회에 평의원으로 참여하였다. 1909년에는 서상일(徐相日), 김동삼(金東三), 남형우(南亨祐) 등과 함께 대동청년단이라는 비밀 조직의 청년운동단체를 결성하였다(이동언, 1994).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합병을 당하게 되자 안희제는 1911년 러시아로 망명하였다가 1914년 9월에 귀국하였다. 러시아 망명 시절부터 안희제는 언론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연해주 지역에서 최명찬(崔秉瓚)과 함께 「독립순보」(獨立旬報)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국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백산상회의 설립이었다. 곡물, 면포,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개인상회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국내의 비밀 연락망과 독립운동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백산상회가 1919년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뜻있는 유지들을 규합하여 백산무역주식회사로 확대, 개편되어 안희제는 취체역을 맡았다. 1919년 11월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청년 교육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미육영회를 조직하였다(이동언, 1994).

1920년 한국인에 의한 민간지가 허용될 당시 안희제는 부산을 중심으로 신문을 창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기에 발행된 잡지 『비판』에 실린 글에서 채필렬(蔡必烈, 1933, 52쪽)은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인사들이 『동아일보』 창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안씨 등도 제등(齊藤) 문치주의의 충동을 받아 부산을 중심으로 신문발행을 목적으로 50만 원대의 자금모집을 준비하던 중 지방신문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방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씨 등도 중앙 진출을 도(圖)하게 되자 김씨 일파와 악수하게 되었으니 이로부터 일약 일백만 원의 주식회사를 양파 합동으로 발기하게 되었다.

안희제가 중심이 되어 부산 지역에서 신문 창간을 준비하면서 자금 모집까지 했으나 지방에는 허가 안한다는 총독부의 방침을 확인하고는 포기하고 대신 『동아일보』의 창간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김성수는 경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안희제는 영남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의 창간 허가 직후인 1920년 1월 14일의 발기인 총회에는 78명의 발기인들이 참석했는데, 그중에 안희제와 백산상회의 중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 1975, 89쪽). 최준(崔浚)과 이종화(李鍾和), 정재원(鄭載源), 김시구(金時龜), 윤병호(尹炳浩), 윤상은(尹相殷), 문상우(文尙宇), 허걸(許杰), 윤현태(尹顯泰), 문영빈(文永斌) 등(이동언, 1994) 외에도 『경남일보』 창간 주역의 한 사람이며 창간 당시 사장을 맡기도 했던 김홍조도 포함되어 있다.<sup>2)</sup>

안희제는 『동아일보』 창간 과정에서 전체 주식의 절반 가량을 모집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주도권 다툼에서 김성수 등에게 밀려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며(채필렬, 1933, 52쪽) 창간과 함께 부산 지국장을 맡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지국장은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으며 1년 남짓 뒤에 2대 지국장 김종범에게 물려 주었다. 안희제는 그후로도 언론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1927년 초에는 『경제운동』이라는 제호의 경제 분야 월간 전문잡지 창간을 시도하였다. 『동아일보』 1927년 1월 31일자 4면에 실린 ‘『경제운동』사 조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파멸을 당하는 조선 현금에 잇서서 차(此) 대책의 기관이 무(無)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산 유지 안희제 최태욱(崔泰旭) 씨 외 다수의 발기로 『경제운동』이라는 월간잡지를 조직하고 당국에 허가원을 제출하였다는데 차 소식을 들은 부산 인사들은 만히 기대한다더라(부산)

안희제와 최태욱을 중심으로 부산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의 발기가 이루어져 잡지사를 설립하고 당국에 허가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잡지의 성격이나 발간 목적은 경제 분야의 전문 잡지를 지향하여 식민지 조선의 몰락해 가는 경제에 무언가 활로를 모색해 보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잡지가 실제로 창간되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안희제는 1928년에는 『중의일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에 취임하였다. 이 『중의일

2) 이때에 안희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의 인사들이 동래에서 따로 동아일보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는 주장도 있다(김의환, 1975, 94쪽).



보』는 1926년 9월 18일 이상협이 『시대일보』를 인수하여 그해 11월 15일부터 제호를 『중외일보』로 바꾸어 창간한 신문이었으나 창간 직후부터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박용규, 1996, 111~124쪽).

이러한 상황에서 안희제와 함께 경남 의령의 대지주로 백산무역주식회사에도 참여했던 이우식 등이 『중외일보』 인수에 나섰다. 이들은 1928년 6월부터 24명의 발기인들이 모여 준비해 오다가 그해 11월 23일 경성에서 주식회사 중외일보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중외일보사는 전체 자본금 15만 원을 목표로 주식을 3천 주 발행하여 그 중 2천 400주를 발기인 24명이 분담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기로 하였다.

이 주식회사 중외일보사의 주주로서 이우식을 비롯하여 경남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전체 106명의 주주 중 74명이 경남 지역 인사(‘주식회사 중외일보사 창립총회의 건’)로서 약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창립 총회에서는 이우식이 대표로 선임되었으나 내부 알력 끝에 사임하고(‘중외일보사 신사장 사임에 관한 건’) 1929년 9월 1일부터 안희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다. 안희제가 경영을 맡은 이후 『중외일보』는 여러 가지 혁신을 시도하였으나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1931년 9월 2일에 주식회사 중외일보사를 해산하고 말았다(박용규, 1996, 124~125쪽).

이처럼 『동아일보』 부산 지국의 초대 지국장 안희제는 민족운동뿐만 아니라 언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2) 김종범

2대 지국장을 맡았던 김종범은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1891년 부산 영주동에서 태어난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1\\_10982](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1_10982) 2011. 7. 28.) 김종범은 성장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알 수 없다.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을 맡게 되는 1921년경에는 부산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운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노동이나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다. 1921년 4월 9일에는 부산의 예월회(例月會)의 간사를 맡게 되었다(『동아일보』 1921. 4. 12. 4면). 이 예월회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 10월에 부산의 각계를 대표하는 지식인 40여 명이 조직한 단체로서 부산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은 기여를 한 단체로 평가되고 있다(『동아일보』 1921. 3. 16. 4면).

지국장을 맡기 직전인 1921년 5월 3일과 4일자 『동아일보』 지면을 보면 ‘부산 김종범’이라는 기명으로 ‘교육조사위원회에 대한 오인(吾人)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글이 2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이 글은 사이토 총독이 당시 교육제도의 개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자 이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지국장을 맡은 직후인 1921년 9월에는 쟁의를 조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관부연락선 수하물적치장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반일 문서를 배포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도록 파업을 조종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근대사연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tc\\_md\\_1921\\_09\\_22\\_0060](http://db.history.go.kr/url.jsp?ID=tc_md_1921_09_22_0060) 2011. 7. 28.).

1922년 7월 3대 지국장 김준석에게 넘겨 주고 난 직후에 김종범은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하였다. 1923년 8월에 다시 귀국할 때까지 일본대학 사회과에서 수학하면서(‘김종범 피의자신문조사’) 1922년 9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한인으로 조직된 신간현조선인노동자학살사건조사회가 주최한 대중 연설회에 연사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22. 9. 6.). 그 이후에는 일본재류조선노동자상황조사회 간부를 맡아 1922년 12월 오사카에서 열린 조선노동자동맹 창립총회에 참석차 오사카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었다(『동아일보』 1922. 12. 22.). 1923년 1월에는 일본 유학생 김약수(金若水), 송봉우(宋奉瑀), 변희용(卞熙鎬), 이여성(李如星) 등과 함께 공산주의운동을 목적으로 한 북성회를 조직하였다(『근대사연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tc\\_md\\_1923\\_01\\_15\\_0020](http://db.history.go.kr/url.jsp?ID=tc_md_1923_01_15_0020) 2011. 7. 28.). 1924년에는 부산노동동맹회의 집행위원을 맡았으며 그해 4월에는 전국의 노동 및 농민단체를 아우르는 연합체 조직에 나서 조선노동대회를 개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조선노동대회외건』) 1924년 4월 20일에 출범한 조선노동총동맹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김준엽·김창순, 1986, 97쪽). 1924년 6월에는 언론집회압박탄핵회에도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언론집회압박탄핵회의건』) 활약하다가 사회주의 불온 연동을 이유로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김종범 피의자신문조서』).

이처럼 2대 지국장 김종범은 지국장 역임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회주의 지식인으로서 부산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인사였음을 알 수 있다.

### (3) 김준석

3대 지국장 김준석은 청년운동과 교육운동 분야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이었다. 1880년 동래군 부산면 출신으로 부산에서 육영학당과 일본 학교 고등과를 마친 후 1901년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의 중학교를 거쳐 1906년 철도학교 건설과를 졸업하였다(『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1\\_03459](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1_03459) 2011. 7. 28.). 1907년 7월에는 교남교육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황성신문』 1907. 7. 11. 4면) 이어 1911년부터 1915년까지는 부산부의 관리를 역임하였다(『일본제국직원록 1915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15\\_1247\\_0140](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15_1247_0140) 2011. 5. 18.).

그 이후로는 청년운동에 투신하였다. 1921년에는 부산청년회를 대표하여 조선청년회연합회에 참여한 사실이 일본 육군성 기록에 남아 있다(『청년회통일계획』). 이 조선청년회연합회는 3·1운동 이후 국내에 난립한 청년단체를 단일 조직체로 묶으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조직이었다. 일제의 식민 정책이 바뀌면서 각종 사회단체들도 양산되었는데, 그중 다수를 차지한 것은 청년단체였다. 이처럼 단체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게 되자 이를 단일 조직체로 묶으려는 의도로 1920년 6월 28일에 장덕수, 오상근, 박일병, 장도빈 등 50여 명이 모여 발기한 단체가 이 연합회였다. 1921년 4월초에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 김준석은 의원으로 선임되었다(김준엽·김창순, 1986, 100~109쪽).

### (4) 문상우

4대 지국장 문상우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였다. 1880년 부산에서 출생한 문상우 부산 육영학교에서 한학을 배운 후 1903년 일본에 유학하여 1911년에 동경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였다. 귀국 직후 경성의 한일은행에 취직하여 은행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912년 경남은행 지배인이 되었다(『경상남도중추원의원추천외건』, 『중추원 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ju\\_031\\_007\\_0010\\_0040](http://db.history.go.kr/url.jsp?ID=ju_031_007_0010_0040) 2011. 8. 2.). 1920년경에는 부산부의 참사관이라는 직위의 관리를 역임하였다(『조선총독부및소속관서직원록 1920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20\\_1323\\_0080](http://db.history.go.kr/url.jsp?ID=jw_1920_1323_0080) 2011. 8. 2.). 1921년 8월에는 경남은행 상무취체역에 선임되었다(『동아일보』 1921. 8. 12.).

문상우는 안회제가 벌인 사업에도 참여하여 1919년 11월에 발족한 기미육영회에는 평의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25년 7월에는 백산무역주식회사의 취체역에 선출되었다(이동언, 1994). 1927년에는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金季洙)가 해동은행을 인수하자 지배인으로 입사하여 후에 전무까지 맡으면서 경영을 안정시킨 주역이 되기도 하였다(강춘거사, 1936, 72쪽).

#### (5) 김용진

5대 지국장 김용진은 개인적인 출생이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부산에서 교육운동과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1921년 4월 30일과 5월 1일 2회에 걸쳐 부산에서 부산학교평의회를 중심으로 한 유자들이 주최한 교육문제 관련 강연회에서 김용진이 ‘우리 자녀’라는 연제로 강연하였다(『동아일보』 1921. 4. 30. 4면). 또한 1922년 9월 8일 부산청년회가 주최한 대강연회에서도 김용진은 ‘부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동아일보』 1922. 9. 13. 4면). 이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김용진은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년운동가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김용진은 동아일보 지국장 재임 시절에는 부산 기자단 창립을 주도하며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부산 기자단이 창립된 것은 1924년 4월 15일이다. 『시대일보』 부산 지국 사무실에서 열린 창립 대회에서 김용진과 함께 『조선일보』의 지국장 황기수, 『시대일보』 지국장 김국태의 3인이 간사로 선출되었다(『조선일보』 1924. 4. 18. 4면).

또한 이 시기에는 부산 지역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부산 사회주의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부산청년회의 중심 인물이었으며 1925년 후반에는 부산 지역 청년단체들의 연합 단체인 부산청년연맹을 결성하려는 시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55~56쪽).

#### (6) 노상건

노상건은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사상 및 청년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1922년 10월부터 『동아일보』 김해 지국 산하 진영 분국장을 맡으면서(『동아일보』 1922. 10. 1. 1면) 진영을 기반으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한 인물로서 서울청년회 계열이었다(이규영, 1993, 501쪽). 1924년에는 진영에서 소작인회의 결성을 시도하다가 그 취지서를 인쇄, 발행한 것이 출판법 위반이라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 판결문에 당시 나이가 34세로 기록되어 있다(‘노상건 등 판결문’).

1925년 4월에는 그해 5월 8일 출범 예정이던 조선사회운동자동맹에 진영 지역을 대표하여 발기준비위원으로 참여(‘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 준비위원회의 동정에 관한 건’)하였으며 전선노동대회에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노동대회 준비위원회 동정의 건’). 또 같은 해 6월에는 조선청년총동맹에서도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조선청년총동맹의 동정에 관한 건’) 등 전국 조직에서도 적극 활약하였다.

1925년 8월경 부산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55쪽). 언제부터 『동아일보』 지국장을 맡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 이 8월경이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지국장 시절인 1925년 11월 22일부터 부산청년회의 서기로 활동하였다(『시대일보』 1925. 11. 25. 3면).

이 즈음 노상건은 부산 기자단에 내분을 야기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이 내분은 부산의 청년운동단체들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부산 지역에서는 김용진과 고정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부산청년회에서 기반을 다진 사회주의 세력과 1925년 8월을 기점으로 경남 진영에서 활동하던 노상건 그룹이 부산 지역 사회운동에 진출하자 양 세력은 주도권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각기 부산청년연맹과 부산부청년연맹이라는 이름의 2개의 단체 결성 시도로 이어졌으나 일제로부터 불허 조치를 받음으로써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55~56쪽).

1925년 12월 초 부산청년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모여 부산청년연맹 결성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모임은 김용진 등이 주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노상건 등이 참여단체가 아닌 부산의 영주구락부 대표를 자임하여 준비 모임에 참석,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시대일보』 1925. 12. 27 2면<sup>3)</sup>). 이에 고정대가 지국장이던 『시대일보』가 1925년 12월 13일자 3면에 노상건을 강하게 비난하는 논조로 ‘노○○이 부산청년회 서기에서 해임되었으며 부산청년연맹 발기위원회와 부산 기자단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3건의 기사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가 12월 15일자 4면에서 ‘기자단 분개’라는 제목으로 『시대일보』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부산 기자단은 조사에 나선 일이 없다고 분개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바로 뒤이어 12월 17일자 3면에서 『시대일보』는 부산청년회가 ‘○○일보 노○○ 지국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일보에 대해 비매동맹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런 와중에 경상남도 경찰부는 1925년 12월 15일 부산청년연맹이 불온하다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시대일보』 1925. 12. 19. 3면). 또한 이 즈음해서 『동아일보』 지국의 총무 겸 기자 김한규가 다른 신문사의 기자 1명을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부산 기자단은 강력히 항의하며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 명의로 사죄장을 12월 25일까지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김대상, 1981, 106쪽).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는 가운데 12월 25일에는 노상건 측의 청년들이 『시대일보』 지국장 고정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하여 그 동안의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 문서를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시대일보』 1925. 12. 27 2면).

이에 부산 기자단은 1925년 12월 31일 월례회를 열고 『동아일보』 지국장 노상건을 기자단의 요구를 무시한 몰지각한 자로 규정하고 앞으로 『동아일보』 지국과는 일체의 연락이나 제휴를 단절하고 지국장이나 지국원을 축출하고 향후의 가입도 거절한다고 결의하였다(『시대일보』 1926. 1. 3. 7면).

노상건은 그 다음해인 1926년 1월 20일에는 ‘조선기선회사의 배포를 사기하여 부산 통영간에 승선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시대일보』 1926. 1. 25. 5면). 그러나 얼마 뒤 풀려나서는 그해 5월경 지국장을 그만두고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그해 8월 31일에는 부산에서 열린 철공조합 강연회에 ‘노동문제의 사회화’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으며(『동아일보』 1926. 8. 30. 4면) 그 후 이 철공조합의 대표를 맡았다. 1928년 5월 21일 개최된 부산양화직공조합 창립총회에 철공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여 축사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검거 사유는 당초 경찰이 이 총회에서 축사 및 상담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축사와 상담을 했다는 것이었다(『중외일보』 1928. 5. 23. 2면).

1927년에는 조선노동총동맹이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될 때, 노동총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1927. 9. 9. 2면). 신간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1929년 9월 21에 열린 부산지회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중외일보』 1929. 9. 29. 3면).

## (7) 강영순

7대 지국장 강영순도 초기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서울의 보성고보를 졸업한 강영순

3) 이 기사는 이름을 ‘노상근’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김대상(1981, 106쪽)의 책에는 ‘노상관’으로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일제 경찰이나 법원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노상건’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은 일본에 유학하여 법정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그후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1923년 서울과 공산그룹의 경남 지역 조직 책임자를 맡았다. 당시 그는 21세로서 서울과 공산그룹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다(『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42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jsp?tid=dg&id=dg\\_042\\_009\\_001](https://search.i815.or.kr/Degae/Degae.jsp?tid=dg&id=dg_042_009_001) 2011. 7. 29.).

1923년에는 청년운동의 노선을 민족개량주의적 문화운동으로부터 사회주의 노선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시도된 조선청년당대회에 진영청년회를 대표하여 준비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25년에는 전조선노동대회에 앞의 노상건과 함께 진영대표로 참여하여 준비위원을 맡았다(김준엽·김창순, 1986, 252쪽).

그는 1925년 12월에는 경남 진영의 『동아일보』 지국장을 맡았다가(『동아일보』 1925. 12. 10. 4면) 1926년 5월부터 부산 지국장을 맡았던 것이다. 강영순은 1937년 11월 후임자 강대홍에게 넘겨주기까지 11년 넘게 재임함으로써 가장 오랜 기간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을 맡았다. 『동아일보』 1935년 12월 11일자 부산 소개판에도 보면 지국장 자격으로 ‘10주년기념호 발행에 제(際)하야’라는 제목의 강영순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 (8) 강대홍

8대 지국장 강대홍은 1925년 12월 7대 지국장 강영순이 진영 지국을 맡을 때 휘하의 기자로 출발하였다가 1926년 12월에는 강영순이 지국장으로 있던 부산 지국의 기자로 임명되었다(『동아일보』 1926. 12. 22.). 신문기자가 되기 전 강대홍은 진영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하여 진영노동공제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24년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대회 참가자 명단을 보면 강대홍이 진영노동공제회 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조선노동대회의견』, 『동아일보』 부산 지국 기자 시절에는 1928년 2월 4일과 5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경남기자대회에서 본부의 간사 9명 중 1인으로 선임되었으며(『중외일보』 1928. 2. 6. 4면), 대회 2일째에는 부의장을 맡기도 하였다(『중외일보』 1928. 2. 8. 4면).

이 즈음 강대홍은 사회주의 운동에도 참여하여 1928년 제3차조선공산당사건 일명 ML당사건으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실형을 언도받아 복역하고 1932년 1월에 출소하였다(『동아일보』 1931. 1. 9.). 출소 후 얼마 안되어 1932년 6월 5일에는 동래노조 간부인 윤상규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한 것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동아일보』 1932. 6. 9. 3면). 1935년에는 부산체육회가 창설되었는데 그 이사로 선임되었다(『동아일보』 1935. 10. 24.). 그 후에 『동아일보』 지국장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강대홍도 이처럼 다양한 사회활동을 벌인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 (9) 서유성

일제기의 마지막인 제9대 지국장 서유성은 원래 부산에서 청년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이다. 『동아일보』 1922년 6월 24일자 4면을 보면 6월 19일 부산청년회가 개최한 강연회에 서유성이 연사로 참여하여 ‘새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후 서유성은 산업조합문제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1926년 산업조합령을 반포하여 이에 따라 산업조합들이 설립되어 각 기업의 활동에서 조합을 통한 공동 활동을 도모케 되었다. 서유성은 이 산업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 1934년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산업조합문제: 조선산조운동을 기(機)하야’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연재하였다. 1928년 4월에는 경남 합천의 대양산업조합 이사를 맡았으며 1932년

3월경에는 경남 창원 대산면의 대산산업조합 중영을 맡아 실제 산업조합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한국 근현대회사조합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011. 8. 1.).

서유성이 언론에 참여한 것은 1931년 1월 『동아일보』 서면분국의 고문으로 임명(『동아일보』 1931. 1. 11. 3면)되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1940년 7월에 부산지국장을 맡았으나 잘 알려진 대로 바로 뒤인 1940년 8월에 『동아일보』가 폐간되면서 지국장은 단명에 그치고 말았다.

## 2) 『조선일보』의 부산 지국장들

『조선일보』는 창간 얼마 뒤인 1920년 6월부터 부산 지국을 설치하였다. 다음의 표는 일제기 『조선일보』의 부산과 동래의 지국장을 역임한 사람들의 명단과 재임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일제기 『조선일보』 부산지국장 명단

지국장	재임기간	출처(조선일보 지면)	비고
池榮璣	1920. 6.---	1920. 6. 9.	
安命煥	1921. 1.---	1921. 1. 23.	
具然泰	1923. 8.---	1923. 8. 23.	동래지국장
黃紀秀	1923. 10. 1.---	1923. 10. 5.	특파원겸지국장
李泳坤	1926. 2.---	1926. 2. 3.	
金泳坤 <sup>4)</sup>	1926. 8.---	1926. 8. 7.	
尹一	1928. 3.---	1928. 3. 14.	
金淵福	1928. 4.---	1928. 4. 9.	
崔喆龍	1929. 6.---	1929. 6. 29.	
韓一徹	---1938. 2.	1938. 2. 14.	동래지국장
崔時鳳	1938. 2.---	1938. 2. 14.	동래지국장

### (1) 지영진

초대 지국장 지영진은 1898년 경남 출신으로서 보성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주로 재계에 종사했던 인물로 파악된다. 1920년 『동아일보』 창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연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70. 4. 1. 22면). 『동아일보』 창간 발기인이 『조선일보』의 초대 부산 지국장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마 안희제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의 인사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2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인산업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여(『동아일보』 1921. 8. 1. 2면)하였으며 1922년 7월에는 부산에 증권매매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조합에도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22. 7. 26. 2면).

이후 양산에서 주로 활동하여 양산면장과 양산군수를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정계에 투신하여 건국준비위원회 양산군위원장을 지낸 것을 필두로 양산 지역에서 제3대와 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

4) 이는 전임 이영곤 지국장과의 성만 다르고 이름의 한자까지 똑같다. 이 두 사람이 다른 인물인지 아니면 1926년 2월 3일자 1면과 8월 7일자 1면의 사고 둘 중 하나가 오식이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된다. 이영곤에 대해서도 자료가 전혀 없어 논의하지 못했다.

=im\_109\_20808 2011. 7. 29.). 1929년에는 양산의 농민조합사건에 연루되었다(『반민특위조사기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an\\_047\\_0040](http://db.history.go.kr/url.jsp?ID=an_047_0040) 2010. 6. 1.).

## (2) 안명환

2대 지국장 안명환은 1920년대 초반 부산에서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1924년 3월에는 부산부의 학교평의원을 선출하는데 부산청년회가 공천한 인물 12인 가운데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4. 3. 17. 3면). 1925년 12월에 창립된 부산청년연맹에는 서부청년회의 대표 3인 가운데 1인으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25. 12. 12. 4면).

지국장을 그만둔 이후인 1923년 12월부터는 『조선일보』 부산지국의 고문을 그리고 1926년 5월부터 1928년 5월까지 『동아일보』 부산지국의 고문을 역임하였다(『동아일보』 1926. 5. 4. 4면, 1928. 5. 31. 8면).

## (3) 황기수

3대 지국장 황기수는 1923년초 부산 지국 기자로 지면에 등장하다가(『조선일보』 1923. 1. 24. 4면) 10월초부터 특파원 겸 지국장이 되었다. 이때는 전술하였듯이 『조선일보』가 부산 지국을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본사에서 특파하는 형식의 지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황기수는 부산에서 청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4년 5월 17일 부산의 청년단체들이 주관한 부산시민대회에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동아일보』 1924. 5. 22. 3면) 1925년 12월의 부산청년연맹 창립에 참여한 부산청년회 대표의 3인 가운데 포함되었다(『동아일보』 1925. 12. 12. 4면).

지국장을 역임한 후에는 1925년 12월경 『시대일보』 부산 지국의 기지를 잠시 거쳐(『시대일보』 1925. 12. 22. 3면) 『동아일보』 기지를 2회에 걸쳐 역임한 인물이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동아일보』 1926년 1월 10일자 4면을 보면 그가 사임하였다는 사고가 게재되어 있으며 1930년 3월 12일자 8면에도 다시 부산지국 기지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이 공지되고 있다. 1929년 5월에 부산 기자단이 재출범할 때 『동아일보』 기자로서 참여하였다(『조선일보』 1929. 5. 20. 석간 4면).

또한 그는 1920년대 후반의 신간회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28년 4월 21일에 개최된 신간회 동래지회 창립대회에서는 간사로 선임되었다(『동아일보』 1928. 4. 25. 4면). 1929년 1월 8일에 개최된 신간회 동래지회 제1회 정기대회에서 임원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도 간사로 선출되었다. 동래지회가 주최한 강연회 등 행사에 연사로 적극 참여하였다. 1928년 6월과 7월에는 신간회 동래지회와 동래청년동맹이 공동 주최한 지방문제에 관한 강연회(『동아일보』 1928. 6. 28. 4면, 1928. 7. 6. 4면)에서 신간회 측의 연사로 참여하였다. 1930년에는 동래 지역의 사회단체 경오구락부에 참여(『동아일보』 1930. 2. 5. 3면, 1930. 2. 27. 3면)하였으며 1939년에는 동래읍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동아일보』 1939. 5. 24. 7면).

## (4) 김영곤

김영곤은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청년운동을 벌인 인물이다. 1925년 경성에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열려다 일제 당국이 회의를 금지시키자 이에 항의하여 4월 19일 200여 명이 적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 적기사건에 관련되어 검거된 경력이 있다. 당시 경찰 기록에 보면 피검자 명단에 김영곤도 나오는데, 주소는 경남 양산군이며 당시 직업은 곡물상으로 되어 있다. 『조선일보』 마산지국장 김상주

(金尙珠)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함께 상경하여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금지의 건’). 당시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운동 단체 회원들이었는데, 이들은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만세’와 ‘무산자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동아일보』 1925. 4. 22. 2면) 것으로 보아 이 시위를 주도한 세력이 사회주의 계열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김영곤은 4월 22일 밤에 방면되었다(『동아일보』 1925. 4. 24. 2면).

1927년 3월에는 양산의 도평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1930년 3월에 실시된 도평의원 선거에서도 연임되었다(『동아일보』 1927. 3. 21. 4면, 1930. 3. 26. 3면).

#### (5) 윤일

1928년부터 지국장을 역임한 윤일도 사회주의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윤일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3·1운동 당시 고향에서 시위를 주도하여 1년간 복역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7년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경남 도간부를 맡았으며 1928년에는 중앙위원이 되었다가 그해 8월에 검거되어 형을 살았다(『한국근현대인물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8\\_01700](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8_01700) 2011. 7. 29.). 지국장을 맡기 전인 1925년 12월에는 『동아일보』 거제 지국의 기자로 임용되었으며(『동아일보』 1925. 12. 25. 4면) 1927년 6월에는 『동아일보』 김해지국의 대저 주재기자로 임용되었다(『동아일보』 1927. 6. 15. 4면).

#### (6) 최철룡<sup>5)</sup>

최철룡도 청년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최철룡은 1902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1922년 경남 지역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2011. 8. 2.). 1922년 12월에 출옥한 최철룡(『동아일보』 1922. 12. 20. 3면)은 그 후 1923년 7월에 마산지국 기자로 임용되었다(『동아일보』 1923. 7. 17. 1면). 언론 활동을 하면서 마산청년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대중강연, 토론 등에 연사로 참여하였다(『동아일보』 1926. 12. 11. 4면, 1927. 4. 17. 4면). 1927년에는 마산청년회와 마산청년동맹의 간부로서 신간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그해 7월 20일의 설립대회에서는 조직선전부와 상무위원의 역할을 맡았다(이균영, 1993, 329-333쪽).

1928년 2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경남기자대회에서는 최철룡은 첫날 사회를 맡고 부의장에 선임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중외일보』 1928. 2. 6. 4면). 1933년 4월 경남기자동맹이 함안에서 개최한 제8회 경남기자대회에서도 최철룡은 부의장을 맡았으며 이 대회에서 집행부의 서무부장으로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33. 4. 13. 3면).

1934년 2월에는 진주 지역 부호의 집을 습격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요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기사에 의하면 최철룡은 당시 마산의 모 신문사 지국장이었다고 한다(『동아일보』 1934. 2. 24. 2면). 이 사건으로 최철룡은 징역 5년형을 받았다(『동아일보』 1934. 7. 8. 2면). 이로 미루어 볼 때 1933년 하반기나 1934년 연초에 부산 지국장을 그만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최철룡 이후 부산 지국장을 누가 맡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안된다.

5) 1928년 4월부터 지국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되는 김연복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없어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 4. 일제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분국 참여 인물들

##### 1) 『동아일보』 부산 지분국의 참여 인물들

일제기 두 신문의 각 지분국에서도 기자를 고용하였다. 당시 『동아일보』 지면을 보면 분국 기자의 임면 상황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동아일보』 지면을 토대로 해서 일제기 『동아일보』 부산과 동래 지국 및 산하 분국에 참여했던 인물과 그 역할, 그리고 활동 기간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6> 일제기 『동아일보』 부산 지분국의 참여 인물<sup>6)</sup>

성명	소속	역할	기간
金奉道	밀양분국	총무 겸 기자	20.9.2.-
宋鍾鉉	부산지국	총무 겸 기자	21.6.22.-21.8.10.
李英煥	부산지국	외무원	21.6.22.-21.8.10.
許俊海	울산분국	총무	21.7.17.-
白南哲	울산분국	기자	21.7.17.-22.1.7.
金在浩	동래분국	총무 겸 외교	21.7.23.-21.11.16
"		외교	21.11.16.-
白奉基	부산지국	총무 겸 기자	21.8.10.-21.9.27.
俞鑣榮	부산지국	총무 겸 기자	21.9.27.-22.1.17.
邊在益	동래분국	총무 겸 기자	21.11.16.-22.7.28.
朴秉鎬	울산분국	기자	22.1.7.-
俞榮俊	부산지국	총무 겸 기자	22.1.17.-
田性昊	부산지국	총무 겸 기자	22.7.8.-
金孝坤	부산지국	서기	22.7.8.-
金琪三	동래분국	총무 겸 기자	22.7.28.-23.4.30.
趙熙守	동래분국	고문	22.7.28.
文時煥	부산지국	기자	-23.2.3.
"		기자 겸 사무원	23.12.30.-
盧紹容	부산지국	기자	23.2.3.-
朴英雨	부산지국	기자	23.3.22.-
金定守	부산지국	기자	23.3.22.-
尹昌漢	부산지국	기자	23.5.24.-
鄭泰高	부산지국	고문	24.12.27-
朴東柱	부산지국	기자	-25.12.9.
黃紀秀	부산지국	기자	-26.1.10.
"			-30.3.12.
吳斗錫	부산지국	集金員	26.5.4.-
宋泰昇	부산지국	고문	26.5.4.-28.5.31.
鄭箕斗	부산지국	고문	26.5.4.-30.3.12.
金容瑾	부산지국	고문	26.5.4.-30.3.12.

6) 기간에 명시된 날짜 『동아일보』 지면이 자료의 출처이다. 기간 종료일만 표기한 사례들은 최초 임용에 관한 기사가 확인이 안 된 경우이다.

安命煥	부산지국	고문	26.5.4.-28.5.31.
崔明洛	부산지국	기자	26.5.26.-28.4.12.
徐影澤	부산지국	기자	26.5.26.-30.3.12.
金日奉	목지도분국	기자	26.7.4.-
朴實明	목지도분국	기자	-26.8.16.
姜大洪	부산지국	기자	26.12.22.-30.3.12.
崔昌燮	부산지국	기자	26.12.22.-27.7.19.
洪仁植	구포분국	총무	27.6.18.-
洪瑄錫	구포분국	기자	27.6.18.-
金鍾觀	구포분국	기자	27.6.18.-
崔元胄	부산지국	기자	27.7.19.-28.4.12.
禹一呼	구포분국	고문	27.10.4.-28.2.26
李達俊	구포분국	기자	28.2.26.-
金玉兼	구포분국	기자	-28.8.9.
尹輔儀	구포분국	기자	28.8.9.-
李鍾模	부산지국	기자	28.11.8.-
文有粲	구포분국	기자	28.12.23.-
姜大奭	부산지국	총무 겸 기자	30.3.12.-
徐有駿	서면분국	총무 겸 기자	31.1.11.-31.5.6.
徐成萬	서면분국	기자	31.1.11.-31.3.21.
"		고문	31.5.6.-31.7.6.
"		총무 겸 기자	31.7.6.-
辛泌	서면분국	고문	31.1.11.-31.5.6.
"		기자	31.5.6.
徐有聲	서면분국	고문	31.1.11.-
朴長浩	서면분국	총무 겸 기자	31.5.6.-31.7.6.
金甲珍	서면분국	고문	31.5.6.-31.7.6.
"		총무	31.7.6.-
朴文學	서면분국	기자	31.5.6.-
韓一徹	동래지국	기자	32.7.14.-
田斗萬	부산지국	괴정주재기자	32.11.17.-
金任鍾	웅동분국	총무	32.11.17.-
金致守	웅동분국	기자	34.11.28.-
姜在殷	부산지국	기자	37.12.11.-
金炯璣	부산지국	고문	38.4.9.-
李貴興	부산지국	고문	38.4.9.-
金千壽	부산지국	고문	38.4.9.-
田性昊	부산지국	고문	38.4.9.-
徐有玉	부산지국	총무	40.7.27.-
李錫柱	부산지국	기자	40.7.27.-
金在文	부산지국	사진반	40.7.27.-
李尙容	부산지국	집금원	40.7.27.-

총 65명의 인물이 부산 지역 『동아일보』 지분국에서 언론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각 지분국은 대개 2~3명 정도의 기자를 두었으며 폐간 직전 부산지국은 사진 기자를 별도로 뽑기도 하였다.

그 외에 판매와 영업을 맡은 총무와 사무원을 두었고 수금을 맡은 집금원도 있었다. 각 지분국별로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분국 기자들 면모를 살펴보면 지역의 언론인들 중에는 지분국의 기자로 언론 활동을 시작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동아일보』 부산 지국장을 맡게 되는 강대홍과 서유성이 지분국 기자나 고문을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지국장 중에서도 안명환과 황기수, 한일철 등이 『동아일보』의 지분국 기자나 고문을 역임하였다.

## 2) 『조선일보』 부산 분국의 참여 인물들

『조선일보』도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지국과 분국에도 약간 명의 기자를 두고 취재 활동을 벌여 지면에 부산 인근 지역의 소식을 담당하였다. 다음의 표는 『조선일보』 지면에 공지된 임면 현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sup>7)</sup>

<표 7> 일제기 『조선일보』 부산 지분국의 참여 인물

성명	소속	역할	기간
李 菁	부산지국	고문	1920.6.9.
李彦成	부산지국	총무겸기자	1920.6.9.
李英煥	부산지국	총무	1921.1.23.
"		기자	1921.11.16.
李聖奎	부산지국	기자	1921.1.23.
朴一龍	부산지국	내무원	1921.1.23.
金潤洙	부산지국	고문	1921.11.16.
嚴進永	동래분국	총무겸기자	1923.1.10.
嚴基正	동래분국	고문	1923.1.10.
李康晁	부산지국	기자	1923.1.20.
"	부산지국	특파기자	1923.10.5.-1923.12.18.
金星熙	부산지국	기자	-1923.4.18.
高丁大	부산지국	기자	-1923.4.18.
李聖萬	부산지국	기자	1923.4.30.
吳澄植	부산지국	고문	1923.5.5.
李鍾奭	부산지국	고문겸축탁의(醫)	1923.5.5.
金玪浩	동래통신부	기자겸외무원	1923.5.24.
李周漢	부산지국	사진사	1923.7.5.
尹昌漢	부산지국	총무겸기자	1923.7.31.
"		특파기자	1923.10.5.
崔鏞海	부산지국	고문	1923.7.31.
趙德濟	부산지국	고문	1923.7.31.-1923.12.17.
朴遇衡	동래지국	총무겸기자	1923.8.23.
"		특파기자	1923.12.18.
李錫南	동래지국	기자	1923.10.13.

7) 기간에 명시된 날짜 『조선일보』 지면이 자료의 출처이다. 기간 종료일만 표기한 사례들은 최초 임용에 관한 기사가 확인이 안된 경우이다.

卞東祚	동래지국	기자	1923.12.13.
李秉熙	부산지국	고문	1923.12.17.
安命煥	부산지국	고문	1923.12.19.
尹命儀	동래지국	기자	-1924.9.7.
吳澤	부산지국	기자	1925.4.28.
金漢圭	부산지국	총무	1926.8.7.
金永柱	부산지국	기자	1926.8.7.
魚大成	부산지국	고문	1926.8.7.
金局泰	부산지국	고문	1926.8.7.
金守龍	부산지국	목지도주재기자	-1927.5.10.
金埈源	목도분국	총무	1927.5.10.
金鈕	목도분국	기자	1927.5.10.
趙斗夏	목도분국	고문	1927.5.10.
高漢永	목도분국	고문	1927.5.10.
吳大雨	동래지국	기자	1927.11.23.
權錫哲	기장분국	기자	-1928.2.22.
尹炳仁	동래지국	기자	1928.3.10.-
李康熙	부산지국	기자	1928.3.14.-
金章秀	부산지국	기자	1928.3.14.-
金正一	부산지국	기자	1928.4.9.-
韓一徹	동래지국	총무겸기자	1938.2.14.-

총 42명의 명단이 지면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중 동래 지분국이 10명, 목도분국 소속이 4명, 기장 분국 소속이 1명이다. 직함으로 보면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지분국장 외에 총무와 기자를 두고 있으며 고문을 두기도 하였다. 일부 지역에 따로 주재기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사진사도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923년 5월 5일에는 시내 금강병원 원장을 맡고 있던 이종석을 고문 겸 촉탁의로 위촉하였다. 공지를 통하여 독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고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지속되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 지분국 기자들 중에도 나중에 지국장을 역임하게 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일보』 지국장을 지낸 안명환과 한일철이 『조선일보』 지분국의 기자나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이 두 사람은 두 신문 모두에서 경력을 쌓았다. 안명환은 『조선일보』 지국장을 지낸 이후 두 신문사의 부산 지국 고문을 역임하였으며 한일철은 『동아일보』 동래 지국 기자로 출발하여 『조선일보』 동래 지국의 총무 겸 기자를 하다가 1938년 2월부터 동래 지국장을 맡았다. 앞의 『동아일보』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였지만 이러한 사실은 신문사의 부산 지사와 분국이 지역 언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터전이 되었음을 말해 준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의 부산 지국장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활동했던 언론인들의 면모를 고찰해 보았다. 부산의 지국장들의 사상적 배경과 활동 경력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산, 경남 지역의 청년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중에는 『동아일보』의 초대 부산 지국장 안희제나 제2대 지국장 김종범 등과 같이 전국적 차원의 민족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포함되고 있다.

앞의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아일보』의 경우는 전체 9명 중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경력이 명백히 드러나는 인물이 김종범과 김용진, 노상진, 강영순, 강대홍 등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족운동과 청년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 안희제, 김준석, 서유성 등 3명, 재계 인사가 문상우 1명 등이다.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절반이 넘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현재 파악되는 6명의 지국장 중 청년운동 출신이 안명환과 황기수, 최철룡의 3인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사회주의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은 김영곤과 윤일이 있다. 그밖에 지영진은 재계 인사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로부터 『동아일보』의 지국장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사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에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사회주의권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두 신문의 창간 이후 성격 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창간 당시에는 총독부가 『동아일보』는 민족 진영의 대표 신문으로 『조선일보』는 『시사신문』과 함께 친일 진영의 신문으로 허용(김민환, 1996, 212쪽)하였으나 1924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다. 『조선일보』는 그해부터 소유주도 바뀌면서 인사 및 지면 혁신을 시도하며 사회주의 성향의 기자들도 대거 참여하였다(채백, 2003, 113~116쪽). 『조선일보』 부산 지국장 중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분류된 김영곤과 윤일이 지국장을 맡았던 것도 바로 1926년과 1928년으로서 이때는 『조선일보』 본사의 사회주의 성향 기자들은 대부분 퇴사하였지만 『조선일보』가 신간회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던 때이다.

이는 당시 신문의 전체 사회 및 민족운동에서의 위상에 따라 부산 지국의 인적 구성도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용규(1994)는 일제기 신문들이 특히 1920년대 중반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논한 바 있다. 박용규에 의하면 일제기 운동 세력의 입장에서는 신문이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신문사 경영진 입장에서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 주된 독자층이 교육 받은 청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문 판매 전략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로 서울의 신문사를 대상으로 했던 박용규의 이러한 분석은 지방의 지국, 특히 부산의 지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민족운동의 관점에서 신문을 인식했기 때문에 운동 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신문사의 입장이 잘 맞아 떨어졌으리라는 말이다.

또한 사회주의 성향의 지국장들은 대부분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 1930년대 『조선일보』 지국장은 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지만 『동아일보』의 김종범과 강대홍만 1920년대 초반 및 1930년대 후반일 뿐 나머지 지국장들 중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은 두 신문 모두 1920년대 중반에 역임하였다. 이 사실도 일제기 한국 언론의 민족운동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당시 사회주의 언론인들의 서울에서의 활동도 이 시기에 활성화되었다가 1920년대 후반 신간회가 해체되고 1930년대 들어 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부산 지국 언론인들의 활동도 전체 한국 언론인의 민족운동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개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데이터 베이스를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아직 자료의 수집이 완전치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Ⅰ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황성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nsportal/feature/feature\\_03List.jsp](http://kosis.kr/nsportal/feature/feature_03List.jsp)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http://dlibrary.go.kr>

『네이버 뉴스라이브리』 <http://dna.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경상남도증추원의원추천의건’, 『증추원 조사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ju\\_031\\_007\\_0010\\_0040](http://db.history.go.kr/url.jsp?ID=ju_031_007_0010_0040) 2011. 7. 18.

‘김종범 피의자신문조서’, 『경성지방법원검사국 검찰신문조서』(1924. 6.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st\\_001\\_0020\\_0190](http://db.history.go.kr/url.jsp?ID=ha_st_001_0020_0190) 2011. 7. 28.

‘노농대회 준비위원회 동정의 건’, 京鍾警高秘 제4624호의 1(1925. 4. 23.)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2\\_050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2_0500) 2011. 7. 17.

‘노상건 등 판결문’, 판결문번호 대정13년형공공제402호 1924. 11. 21.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2011. 7. 20.

‘신간회대표회원 선거상황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14794호1930. 10. 11.,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10책』,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106\\_054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106_0540) 2011. 7. 18.

‘언론집회압박탄핵회의건’, 京本高秘 제5028호(1924. 6. 28.),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89\\_142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89_1420) 2011. 7. 24.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금지의 건’, 京鍾警高秘 제4494호의 2(1925. 4. 21.)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1\\_019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1_0190) 2011. 7. 23.

‘조선노농대회의건’, 京鍾警高秘 제4260호의 5(1924. 4. 15.),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89\\_188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89_1880) 2011. 7. 24.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 준비위원회의 동정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4625호(1925. 4. 23.)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2\\_049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2_0490) 2011. 7. 17.

‘조선청년총동맹의 동정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6600호의 2(1925. 6. 19.)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2\\_120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2_1200) 2011. 7. 17.

‘주식회사 중외일보사 창립총회의 건’, 京鍾警高秘 제15854호(1928. 11. 24.)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8\\_072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098_0720) 2011. 7. 15.

‘중외일보사 신사장 사임에 관한 건’, 京鍾警高秘 제4743호(1929. 4. 13.)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100\\_0590](http://db.history.go.kr/url.jsp?ID=ha_d_100_0590) 2011. 7. 16.

‘청년회통일계획’ 密 제33호, 高警 제349호,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3』(일본 육군성 발행, 1921. 1. 18.)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 2011. 7. 18.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42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jsp?tid=dg&id=dg\\_042\\_009\\_001](https://search.i815.or.kr/Degae/Degae.jsp?tid=dg&id=dg_042_009_001) 2011. 7. 29.

- 강춘거사 (1936). 은행주뇌(主腦)인물평: 해동은행 문상우씨. 『삼천리』, 제8권 6호, 6월호, 72~75쪽.
- 김대상 (1981). 『부산경남언론사연구』. 서울: 대왕문화사.
- 김문중 (2006). 일제하 사회주의 잡지의 현실인식에 관한 연구: 1925년부터 1936년까지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남 외 (2002). 『한국민영방송사의 재평가: 한국최초의 민간 상업방송 부산MBC』.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사회비평사.
- 김의환 (1975). 인물론: 백산 안희제. 『신문과방송』, 제53호, 3월호, 88~95쪽.
- 김준엽·김창순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2』. 서울: 청계연구소.
- 동아일보사사편찬위원회 (1975). 『동아일보사사 권1』. 서울: 동아일보사.
- 박용규 (1994). 일제하 민간지 기자집단의 사회적 특성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직업의식과 직업적 특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6). 일제하 시대·중외·중앙·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창간 배경과과정, 자본과 운영, 편집진의 구성과 특성을 중심으로. 『언론과정보』, 제2호, 109~148쪽.
- \_\_\_\_\_ (1998). 구한말(1881-1910) 지방신문에 관한 연구. 『언론정보학보』, 11호(가을), 108~140쪽.
- \_\_\_\_\_ (2006). 일제하 지방신문의 현실과 역할. 『한국언론학보』 제50권 6호, 35~59쪽.
- 박정규 (1987). 한국지방신문의 사적 고찰. 『언론연구』, 제1집, 20~36쪽.
- \_\_\_\_\_ (1997). 한국지방신문의 역사. 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60~94쪽.
- 박창원 (2011). 일제 강점기 대구 지방 한글신문의 실태 연구. 『커뮤니케이션이론』, 제7권 1호(여름), 107~150쪽.
- 부산경남사학회·일제시기 부산지역일본인사회연구팀 (2003).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 연구』. 공동 학술발표회 자료집.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 부산광역시.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부산시사4』. 부산: 부산직할시.
- 유종원·김송희 (2005). 미군정기 지역언론 특성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신문들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5권 2호, 276~307쪽.
- 이균영 (1993). 『신간회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이동언 (1994). 백산 안희제 연구. 『독립운동사연구』, 제8호, 313~335쪽, [http://www.i815.or.kr//media\\_data/thesis/1994/199412.html](http://www.i815.or.kr//media_data/thesis/1994/199412.html) 2010. 5. 14.
- 정진석 (1992). 한국의 지방언론발달사. 『신부전달출회장 화갑기념논총』. 대구: 매일신문사, 203~223쪽.
- 조선일보70년사편찬위원회 편 (1990). 『조선일보70년사』. 서울: 조선일보사.
- 조선일보사 (2010a). 『조선일보90년사』. 서울: 조선일보사.
- \_\_\_\_\_ (2010b). 『조선일보90년사 화보·인물·자료』. 서울: 조선일보사.
- 주경엽 (2008). 『부산이야기99』. 부산: 부산민화회.
- 채백 (1997). 부산지역 언론의 역사와 현황. 『항도부산』, 제14호, 423~476쪽.
- \_\_\_\_\_ (2003). 『신문』. 서울: 대원사.
- \_\_\_\_\_ (2009). 미군정기 『민주중보』의 이념적 성향. 『한국언론정보학보』, 48호, 11월, 170~190쪽.
- 채필털 (1933). 十字架上的 동아일보. 『비판』, 제3권 5호, 46~55쪽.
- 최수일 (2005). 『개벽』 유통망의 현황과 담당층. 『대동문화연구』, 제49집, 347~417쪽.
- 황상무 (1989). 구한말(1896-1910) 언론인 집단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STRACT

**A Study on the Journalists in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ek Cha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journalists in Bu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 the managers of Busan branch of the *Dong-A Daily News* and *Chosun Daily News*. The personal history and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m show that the majority have the career of socialist or nationalist movement. In case of the *Dong-A Daily News*, at least five managers out of nine came from socialist movement. An Heeje and Kim Jongbeom of the *Dong-A Daily News* were a nationwide figure in nationalist and socialist movement.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managers of the *Dong-A Daily News* were more progressive than those of the *Chosun Daily News*. This difference of two newspapers seem to be resulted from the characteristic and social reputation of them. The activists of that time viewed the newspapers as the most effective instrument to approach to mass. And the executives of two newspaper companies also viewed these activists have advantages to the sales promotion of the newspapers.

Keywords: Media History, Journalist, Japanese Colonial Preion, *Dong-A Daily News*, *Chosun Daily News*, Busan Branch

---

\*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